



— 조합 · 업계소식

- 제지 · 골판지 · 지함업계 제 3차 상생협의회 개최
- 2011년도 조합원사 하계휴가 계획 현황 안내
- 민주당 손학규 대표 “대규모 기업집단의 MRO사업 정책 간담회” 개최
- 골판지상자 가격 좀 올려주세요
- 골판지상자 납품단가 연동 반영에 따른 조정신청 안내
- 골판지원지 가격 2년 연속 사상최고가 기록
- 대기업, MRO서 속속 손뎠다
- 골판지조합 “2011년도 중소기업 인력구조고도화 사업” 진행중

제지 · 골판지 · 지함업계 제 3차 상생협의회 개최



【2010년 제지 · 골판지 · 지함업계 상생을 위한 2차 협약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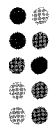
최근 폐지가격 급등으로 촉발된 골판지원지 및 골판지상자 가격 연쇄 인상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제지 · 골판지 · 지함업계 제 3차 상생협의회가 지난 7월 5일(화) 14시에 중소기업중앙회 2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중앙회 조유현 정책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협의회에는 제지업계에서 권혁홍 제지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아세아제지 이재홍 사장, 아진피엔피 정태화 사장, 골판지포장업계에서는 오진수 이사장과 태림포장 정동섭 회장, 제일산업 손명섭 사장, 신안포장 김일영 사장이 참석하였고, 지함업계에서는 박정일 지함조합 이사장과 대원포장 김순제 회장, 원미수출포장 황청성 사장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지함조합 박 이사장은 원지가격의 인상폭이 너무 커 지함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인상시기와 인상폭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지조합 권 이사장은 “당초 폐지가격 인상폭이 너무 커 골심지 가격 인상폭은 톤당 약 12만원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나, 골판지포장업계의 반발이 심하게 나타나서 당초의 방침에서 후퇴하여 8만원 인상과 6월에서 7월로 인상 시기를 늦춘바가 있음을 상기하고, 골판지포장업계와 지함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골판지포장조합 오 이사장은 제지업계에서는 당초 가격 인상을 준비하면서 대화도 기피하는 실정이었지만, 업계 이익과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에 곤란한 점이 있어 조합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청하여 그

나마도 인상 시기나 인상폭을 낮췄다는 점에서 아쉽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별다른 이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과 합의안 도출을 위해 조만간 3개 조합 이사장들이 회동하기로 약속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2011년도 조합원사하계휴가 계획 현황 안내

우리조합 조합원사 42개사를 대상으로 2011년도 하계휴가 계획을 조사한 결과, 휴가 일수를 보면 작년과 동일하게 4일간이 21개사 50.0%(2010년 55.0%)로 가장 많았으며 3일간이 12개사 28.6%, 그 외 일정을 계획한 업체가 9개사 21.4%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4일간의 휴가 일정을 계획한 업체가 10개사, 3일간 5개사, 기타 5개사로 나타났으며, 지방의 경우 4일간 휴가 일정을 계획한 업체 11개, 3일간 7개사, 기타 4개 업체 순이었다.

조사된 조합원사 중 29개사 69.1%가 일괄적으로 휴가를 실시하고 5개사는 2개조로 나눠 휴가 일정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구분	수도권		지방		총계 (수도권+지방)		2010년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휴가 주기	2교대	2	10.0	3	13.6	5	11.9	30.0
	일괄	13	65.0	16	72.8	29	69.1	65.0
	기타	5	25.0	3	13.6	8	19.0	5.0
	소계	20	100.0	22	100.0	42	100.0	100.0
휴가 기간	3일	5	25.0	7	31.8	12	28.6	30.0
	4일	10	50.0	11	50.0	21	50.0	55.0
	기타	5	25.0	4	18.2	9	21.4	15.0
	소계	20	100.0	22	100.0	42	100.0	100.0
휴가 시점	7.29	2	10.0	3	13.6	5	11.9	12.5
	7.30	8	40.0	9	40.8	17	40.5	37.5
	8.1	4	20.0	5	22.8	9	21.4	7.5
	8.2	0	0.0	0	0.0	0	0.0	12.5
	기타	6	30.0	5	22.8	11	26.2	30.0
	소계	20	100.0	22	100.0	42	100.0	100.0

민주당 손학규 대표 “대규모기업집단의 MRO사업 정책 간담회” 개최



지난 8월 5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기업집단의 MRO사업 정책간담회가 한국 산업용재협회(회장 유재근)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최근 대규모기업들의 MRO사업참여는 중소기업들과 중소기업계의 생태환경을 고사시킨다는 인식에서 출발된 문제제기로 결국 삼성그룹의 사업 철수라는 약속을 받아 내는 등의 성과를 보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간담회가 열렸던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측에서 손학규 대표, 김진표 원내대표, 김희철 정조위원장, 전해숙 의원등이 참석하였고, 산업계측에서는 산업용재협회 유재근 회장, 베어링판매협회 박일근 회장, 골판지포장조합 김진무 전무이사 등 관련업계에서 참석하였다.

손학규 대표는 인사말에서 “대기업자의 무분별한 업종 확장으로 건전한 자본주의의 생태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하는 따뜻한 자본주의4.0을 이루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중소기업 10대 정책을 소개하면서 대기업과의 상생문제는 법과 제도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요지의 인사말을 하였다. 산업계 대표로 산업용재 유재근 회장은 그동안 대기업 MRO사업의 부당성을 알려왔던 일에 대한 경과를 설명하고, MRO 분야를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하여 대기업자의 사업을 원천적으로 막아 달라는 요지의 건의를 하였다.

골판지포장조합 김진무 전무이사는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산업인 골판지포장산업에 대규모 기업집단의 구매대행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골판지상자는 실사용자와 제조 공급자간 직거래하는 품목 특성상 중간 유통단계의 개입은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골판지상자와 같은 하도급물품에 대한 MRO사업자의 생산 및 영업제한을 제도적으로 막아 달라는 요지의 제안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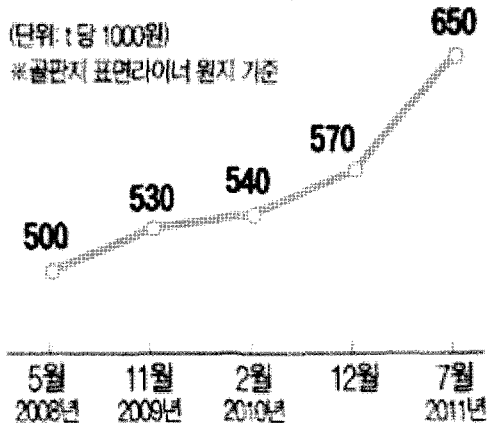


골판지상자 가격 좀 올려주세요

골판지 원지 가격 변동

(단위 : 당 1000원)

*골판지 표면라이너 원지 기준



자료:골판지포장조합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사장 오진수)은 골판지원지가격 인상에 따른 연동 반영 협조 공문을 1,500여 전국 골판지상자 수요기업에 발송하였다. 조합은 “골판지상자의 원자재가격 인상 및 연동 반영 협조 안내”라는 제목으로 최근 골판지원지업계는 6월 하순 경 7월부터 골판지상자의 원료인 골판지원지(라이너, 골심지)가격이 약 20%의 인상을 단행한다고 통지해 왔기에 부득이하게 골판지상자 가격도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골판지포장업계는 가격 변동기가 되면 항상 가수요 발생과 골판지원지의 조업단축과 출하량 조절 등으로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 골판지포장조합은 골판지원지업계의 원활한 원지공급을 촉구하고 있으며, 상자 실수요자의 가수요에 합리적 대응을 당부하고 있지만, 원자재 수급에 있어 불안정 국면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을 일이 되었다고 밝히고, 골판지포장조합은 당장의 수급 안정화를 기하고 골판지포장업계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는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납품단가 연동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니 반영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골판지상자 납품단가 연동 반영에 따른 조정신청 안내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사장 오진수)은 최근 골판지원지의 가격 인상에 따라 골판지포장수요 업체에 “골판지상자의 원자재 가격인상 및 연동 반영 협조 안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 (2011.7.26)을 통해 골판지상자의 납품단가를 연동 반영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번 납품단가 연동 반영과정에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하거나 원사업자가 협의에 불응 등으로 상호협약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필요한 서류(①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15% 가격 상승한 자료 ② 하도급계약서 사본 ③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그 밖에 발주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조합으로 조정신청을 요구하시면 조합은 이사회를 거쳐 발주자를 상대로 납품단가 인상 조정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골판지포장조합으로 문의하면 된다. (02-3474-7124)



골판지원지 가격 2년 연속 사상최고가 기록 "N자 커브에서 계단식 상승 추세로 변함"

골판지 원지가격이 지난 2009년 9월 이후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그동안 골판지 원지가격은 인상 후 약 6개월 내지 8개월 간격으로 N자 커브를 그리며 조정을 보이다 재차 상승하는 양태를 보여 왔으나 지난 2009년 이후부터는 계단식 상승을 거듭하면서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것이다. 골판지원지가격은 2009년 1월 SK180의 501천원/톤은 2009년 7월들이 가격이 480천원/톤으로 낮아졌으나, 그해 9월 들어 제지업계는 톤당 6만원을 인상시킨 540천원/톤으로 거래가격을 인상시켰고 이후 2010년 4월과 금년 7월 들어 두 번에 걸쳐 연속 인상(아래표 참조)시켜 왔다.

이러한 제지업계의 골판지원지가격 인상은 폐지가격의 인상에 따른 연쇄 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폐지는 수시 가격변동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급격한 상승 추세로 2009년 7월부터 2010년 1월간 6개월 사이 거의 2배에 가까운 폭등 양상을 보이면서 골판지원지가격의 연쇄 인상을 부채질하였다.

이에 대하여 골판지포장업계에서는 골판지원지업계가 경영개선의 수단으로 손쉬운 제품가격 연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데서부터 비롯되었다는 불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원지업계

● 조합 · 업계소식

는 경영상황이 어려울 때면 폐지의 수급조절과 가격관리를 통해 개선책을 주로 찾아 왔으나, 폐지업계가 수출을 통한 자율적인 수급 조절능력을 갖게 된 이후 원료 수급이 아닌 제품가격 인상을 통한 경영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골판지포장업계는 폐지 상황이 어려우면 손쉬운 방법으로 원지가격 인상 반영을 일삼는 골판지원지업계의 경영행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골판지원지업계는 폐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골판지포장업계의 경영안정이 가능토록 지원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골판지상자 시장을 면밀히 살피면서 가격 및 수급안정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1월	7월	1월	7월	1월	7월	1월	7월	1월	7월
KOCC	90	110	140	200	80	80	180	180	220	250
SK180	410	380	484	530	501	480	455	540	540	620
S120	300	300	363	440	381	295	355	460	460	540

이는 골판지상자 가격이 타 포장 소재와의 경쟁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경우 포장소재의 대체 또는 무포장 유통으로 급격히 변화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지난해 S전자의 세탁기 포장재가 필름포장 방식으로 바뀐 것이나, 모 제과회사의 골판지상자 재사용 시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골판지상자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상호 · 협력이야말로 지속성장, 상생을 위한 대안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대기업, MRO서 속속 손뎠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MRO 기업

기업	MRO 기업
	아이마켓코리아(IMK)
	서브원
	스피드물
	엔투비
	코리아플랫폼
	웅진홀딩스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MRO(소모성 자재 구매대행) 사업에서 철수하거나 이익을 내지 않는 사회적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기로 하는 등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달 초 삼성은 MRO 업체인 아이마켓코리아(IMK)의 삼성 계열사 지분 58.7%를 처분하고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히고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삼성은 미래전략실 주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골드만삭스를 매각 주간사로 선정해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 의향을 타진하는 등 지분을 매각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화는 이미 지난 6월 MRO 회사인 한화S&C의 사업 철수를 결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에도 통보한 상태다.

SK는 산하 MRO코리아를 연매출 1천억원대의 국내 최대 사회적 기업으로 바꾸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사업 철수가 아니라 회사의 성격을 바꿔 사회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이다.

SK는 MRO 사업 처리 방안을 놓고 여러 대안을 검토한 결과, 대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평가받는 사회적 기업화가 최적의 대책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MRO 업체인 엔투비가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포스코는 “엔투비는 경쟁사와 달리 대기업과 거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3천여곳으로부터 MRO 자재를 공급받아 포스코와 계열사 등에 일정 수수료(2~2.5%)를 받고 자재 구매를 대행해주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무리하게 낮춰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LG도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대로 그 방향에 맞춰 서브원의 지배 및 경영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 제 3강 “제지·골판지 생산 제조공정 및 라인별 주요역할”(국민대학교 김형진 교수), 제 4강 “제지·골판지포장산업의 개요 및 이슈”(씨코코리아(주) 김성일 대표)를 강연하였다.

9월 23일부터 9월 24일까지 영남지역에서 한차례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제지·골판지포장 산업 CEO혁신 교육”, “골판지포장산업 친환경 기술 실용화 전략과 적용” 등의 교육이 아래 표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골판지 조합은 60개사 250명 참여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2011년도 인력구조고도화 사업일정]

단위사업명	교육일정	비고
골판지 및 제지 포장 실무능력 향상교육	8.26~11.30	3회
제지·골판지 포장산업계 CEO혁신교육	11.1 ~11.30	1회
골판지포장산업 친환경 기술 실용화 전략과 적용	9.1 ~12.31	2회

지난해 인력구조고도화 사업은 수도권 및 영남권에서 진행하였으며, 40여개사 80명이 참가하였다.



[2011년도 인력구조 구조고도화 사업교육사진]